

# 새라의 다이어리

이야깃거리 ①

미국 일리노이 팔레타인 고등학교 락커 사건



2016년 5월 13일 (날씨: 흐림)

오늘 학교가 술렁일 만한 얘기를 들었다. 이제부터는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된 남학생과 같은 화장실, 락커룸을 써야 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공립학교에 '트랜스젠더 학생 화장실 권리 보호 지침'을 내려서라고 한다. 이 지침에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선택한 성별(젠더)에 따라 화장실과 락커룸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선생님들은 학교가 이걸 따르지 않으면 학교로 들어오는 연방보조금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 주셨다. 솔직히 말해, 이미 성전환 수술을 마친 트랜스젠더 친구가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되어서 나와 같은 화장실을 쓴다면, 난 반대를 안 할거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몇 있다. 여자가 되고 싶어서 머리를 기르고 여성같이 행동하는, 스스로를 여자로 생각한다는 남자애들이 있긴 한데, 그 친구들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신체구조상 완벽한 남자인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락커룸에서 남자들을 보면... 모두 다 트랜스젠더로 여기면 되는 건가? 진짜 트랜스젠더임을 증명하는 표식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 학생들 앞에서 과연 내가 훌렁훌렁 옷을 벗고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가능할까? 혼자서 학교 화장실 가기가 무섭다. 누가 내 등뒤에서 습격하기라도 하면... 머리가 어지러운 날이다.

2016년 5월 25일 (날씨: 비교적 맑음)

평소 정치에 관심도 없고 세상사에 궁금한 것이 별로 없는 나였는데, 보름 전에 오바마 지침이 내려오고 난 후부터 내가 직접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고 나니 궁금한 것이 생겼다. 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지침을 내렸을까? 이 지침이 내려지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부터 다른 주에서도 난리가 났다는 기사를 봤다. 제일 먼저 텍사스주 주지사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뒤이어 아칸소, 앨라바마, 켄터키, 노스 캐롤라이나, 웨스트 버지니아, 애리조나, 캔자스, 네브라스카, 유타와 메인 주도 뒤따랐다고 한다. 또 이러한 즉각적 반대외사 표명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가 법정에까지 번져서 총 11개 주가 바로 오늘 연방 민권법의 범위와 연방정부의 광범위한 법 해석에 대한 불법성을 다루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우리 일리노이주는... 아쉽게도 소송에 참여를 안 했다. 사실 처음엔 이런 지침이 황당하기도 했지만, 대통령 지침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듯 여러 주의 주지사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것을 보니 무언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법을 위반해도 되는 건가? 연방정부보조금지원을 끊겠다는 협박을 하면서까지...

웹 서핑을 좀 더 열심히 해봤다. 이 지침이 내려진 배경에는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HB2 법안 발의가 있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그 주 내에서는 출생시에 부여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출생신고서상의 성별과 일치하는 공공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법안에 대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은 '차별'이라면서 거센 반발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지침을 내렸던 것이다. 그는 '1964년 민권법' 제9조에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정체성(gender identity)'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별(sex)"에 의한 차별 금지는 이 모두를 포함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등을 토닥거리 주었다. 그 학생들은 대통령의 뺨이 있다. 하지만, 나와 같은 보통 여학생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는 누가 보호해주나?

2017년 2월 22일 (날씨: 화창함)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우리 학교를 술렁이게 했다. 작년에 오바마가 내린 지침을 폐기해버렸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오바마 지침을 폐기한 이유는 이 지침에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오바마가 근거로 내밀었던 '1964년 민권법' 제9조는 공립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적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가 아닌 각 학교와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학교 정책을 마련할 당연한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제껏 많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오바마 지침 이후로 학교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불허에 대해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조사를 요구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모든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공표를 해서 학교가 떠들썩했다.

2017년 12월 2일 (날씨: 매우 추움)

며칠 전,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락빌 지역구는 한 트랜스젠더 학생의 고소장으로 인해 또 한 번 난리가 났다. 이 학교로 전학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예전에도 이와 같은 사건으로 학교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다고 한다. 어쨌든 이번 사건의 시작은 생물학적 성별은 남성이지만 자신이 여성이라 주장하는 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다른 일반 여학생들과 같은 락커룸을 쓰게 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한다. 학교는 다른 여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트랜스젠더인 그 남학생(?) (성전환 수술은 안 했다고 함)에게 여성 전용 락커룸 안에 벽을 하나 설치해서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줬다고 한다. 하지만 그 트랜스젠더 학생은 그러한 학교의 조치를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며칠 전에 우리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미 학교에서 따로 그 학생 전용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감사할 일이 아닌가..? 나와 같은 일반 여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우리와 같은 락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진정 그 학생에게는 편한 일일까? 모든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한 사람이 앞장서서 소송을 해야 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이것이 큰일일까? 난 사실 생각만 해도 매우 불편하다. 앞으로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과 락커룸에 들어온대도 혐오자란 낙인이 찍힐까봐 나가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다. 근데, 강간범이 트랜스젠더인 척하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 이 일기의 주인공 새라는 허구의 인물이며,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 트랜스젠더 화장실 이용 권리에 대한 갈등과 법적 분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2017년 12월에 실제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트랜스젠더 학생의 이름은 노바 머데이 Nova Maday고, 일리노이 쿡 카운티 Cook County에서 제 211 지역구 타운십 고등학교 Township High School District 211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노바는 학교가 그녀를 남성에서 여성 트랜스젠더가 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여학생들과 다르게 대하는 것은 일리노이주 인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1심법원은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여성 락커룸 내 별도의 공간을 제공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곧바로 노바는 그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바는 현재는 락커룸에 관한 학교 규칙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도 고등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트랜스젠더 화장실 권리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2018년 7월에 있었는데, 연방지방법원은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일반 학생들은 학교 화장실, 락커룸, 샤워룸의 이용에 있어서 기본적 프라이버시 보호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달라스 고등학교 Dallas High School에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트랜스젠더가 된 엘리엇 요더 Elliott Yoder 학생이 학교의 남녀구별이 없는 '성 중립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남자화장실을 쓰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은 독립된 개인 락커 공간 제공도, 성 중립화장실조차도 자신들에게는 '차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다른 학생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더라도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권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최우선적, 최상위의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